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2014, 김진운 역)

프레임 · 톰 라이트(N. T. Wright)의 『마지막 말씀』(The Last W...

존 프레임 『성경론』(김진운 역, P&R Korea·CLC 2014), 부록 「톰 라이트의 『마지막 말씀』」, 729–737쪽. 이 글은 처음에 잡지 「펜포인트」(Penpoint) 17권 4호(2006년 8월)에 실렸다. 다루는 책은 N. T. Wright, *The Last Word: Beyond the Bible Wars to a New Understanding of the Authority of Scripture*(HarperCollins, 2005)이고, 영국판 제목은 *Scripture and the Authority of God*(2005)이다.

🧭 흐름 한눈에

프레임은 먼저 톰 라이트가 성경의 역사성과 부활을 강하게 변호해 온 보수적 학자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글을 시작한다. 이어서 라이트의 책을 순서대로 따라간다. 라이트에게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를 줄여 부르는 말'이고,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오는 이야기를 전하며 그 나라를 이루는 도구다. 라이트는 이 관점으로 성경 안의 역사와 교회사를 훑고, 오늘의 바른 성경 읽기를 제안한다. 프레임은 라이트의 진술에 거의 다 동의한다. 그러나 라이트가 '성경 수호전'(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류가 없느냐를 둘러싼 오랜 논쟁)의 핵심 질문, 곧 영감이 성경 본문 자체에 무엇을 하느냐는 질문을 건너뛰었다고 지적한다. 결론은 이렇다.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교리와 윤리의 권위에 무관심할 수 없다. 이야기라는 맥락만으로는 이 논쟁을 넘어설 수 없다.

📜 절별 정리

📜 1. 라이트는 누구이고, 이 책은 무엇을 하려 하는가

프레임은 라이트를 공정하게 소개하며 시작한다. 라이트는 영국 더럼의 주교이자 교회를 깊이 아끼는 신약학자다. 제임스 던과 E. P. 샌더스의 '바울에 관한 새 관점'을 발전시킨 사람으로 가장 유명하고, 그 때문에 논란도 많다. 그래도 그는 부명 보스 쪽

않는다. 2003년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변호하는 매우 방대한 책(*The Resurrection of the Son of God*)도 냈다. 라이트에게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는 이야기이고, 처음부터 로마 제국에 맞선 정치적 사건이다. 그래서 그는 신앙을 개인의 사적인 일로 가두는 것에 반대하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다고 본다. 프레임은 이런 학자가 성경의 권위를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했다고 말한다. 이 책은 얇고 덜 전문적이지만 가볍지는 않으며, 주로 교회 지도자를 독자로 삼는 것처럼 보인다. 통찰은 많지만 중요한 문제를 많이 빼놓았는데, 그중 일부는 일부러 뺀 것이다. 부제가 말하듯 라이트는 '성경 수호전을 넘어서려' 한다. 프레임은 이 시도가 '예배 전쟁'을 넘어서겠다며 넓은 원칙만 내놓던 책들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한다. 그런 책들은 정작 싸움을 일으킨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라이트의 책이 그보다 낫긴 하지만, 무오성 문제로 씨름하는 사람에게는 만족스럽지 않을 것이다. 라이트는 자기 접근법이면 그런 질문이 사라지리라 기대하는 듯하지만, 프레임은 그 기대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본다.

1. 라이트는 부활을 변호한 보수적 신약학자
2. 성경 = 하나님 나라가 오는 정치적 이야기
3. 목표: '성경 수호전'을 넘어서기
4. 프레임: 예배 전쟁 책들처럼 핵심을 피함
5. 무오성을 고민하는 이에겐 불만족스러움

> —
> 이 절에는 직접 인용된 구절이 없음 (저자 소개와 문제 제기)

📜 2. 중심 주장: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를 줄인 말

라이트는 이 책의 중심 주장을 이렇게 밝힌다. '성경의 권위'라는 말은 성경을 통해 행사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위를 줄여 부르는 말일 때만 기독교적 의미를 가진다(23쪽). 성경은 실제로 권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자기 너머를 가리킨다. 최종적이고 참된 권위는 하나님께 있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져 있다는 것이다. 라이트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말씀하신다는 요한복음 8장을

인간이 쓴 책일 뿐이고, 인간이 그렇듯 오류가 있다'는 결론을 끌어낸다. 하지만 무오성을 믿는 사람도 성경이 자기 너머의 하나님, 곧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직접 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믿는다. 그러니 이 비유는 생각이 전혀 다른 신학자들이 모두 쓰는 뻔한 말이다. 이 말만으로는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라이트를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

1. 성경의 권위 = 하나님 권위의 줄임말
2. 최종 권위는 하나님, 지금은 그리스도께
3. '자기 너머를 가리킴'은 바르트풍 표현
4. 무오론자도 같은 말을 함 → 결정력 없음

> **요한복음 8:39-40**
> (라이트 인용) 예수님이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말씀하심 → 권위의 출처는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께 맡겨졌다는 근거
>
> 39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40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 3. 이야기의 권위,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서의 성경

라이트는 오늘날 많은 학자처럼, 성경에 여러 문학 장르가 있지만 전체는 하나의 이야기(내러티브)라고 본다(25–26쪽). 성경은 규칙 목록도 교리 요약집도 아니다. 물론 규칙과 교리를 담고는 있다. 그렇다면 이야기는 어떻게 권위를 가질 수 있을까? 규칙은 할 일을 알려 주고 교리는 믿을 것을 알려 준다. 라이트는 이야기도 할 일이 있다고 답한다. 이야기는 경고를 주고, 명령이 왜 주어졌는지 역사적 배경을 보여 주고, 읽는 사람의 생각을 바꿔 다른 결정을 내리게 한다(26–27쪽).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가 능력으로 오는 이야기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치유에는 그 나라의 권위가 있었다. 하나님의 권위란 온 피조물을 새롭게 하는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이고(29쪽), 성경의 권위는 그 나라의 능력이

보는 것은 모자라다(31–33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의 변화와 사명을 감당할 힘을 가져다주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다(34쪽). 프레임은 각주에서, 자기 독자라면 이것을 언약의 세 요소로 알아볼 것이라고 덧붙인다. 하나님의 말씀은 규범적 측면, 마음의 변화는 실존적 측면, 사명의 능력은 상황적 측면이다.

1. 성경 전체는 하나의 큰 이야기
2. 이야기는 경고·배경·생각의 전환을 줌
3. 권위 = 창조를 새롭게 하시는 주권적 능력
4.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도구
5. 프레임: 규범·실존·상황 삼중 구조와 통함

> —
>
> 이 절에는 직접 인용된 구절이 없음 (라이트의 이야기 신학 소개)

📜 4. 성경 안의 역사: 이스라엘, 예수님, 사도들

라이트는 이어서 역사를 훑는다. 그는 게할더스 보스(프린스턴의 성경신학자)처럼 하나님 나라를 두 가지로 본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다스림이면서, 동시에 악을 물리치려고 하나님이 역사 속으로 뛰어드시는 일이다(35–37쪽). 성경은 이스라엘을 이 싸움에 대비시킨 책이다. 라이트도 이 책을 '영감되었다'고 부를 수 있다고 한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서로 매우 다른 저자와 편집자들을 이끄셨고, 그들이 쓴 책을 백성이 갖도록 뜻하셨다는 믿음을 짧게 표현하는 말이라는 것이다(37쪽). 라이트는 성경 자신이 이런 영감을 당연하게 여긴다고 본다.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기록된 성경과 같은 말이 아니라 창조하고 심판하고 고치고 다시 창조하는 낯선 인격적 임재라고 한다(38쪽). 예수님은 육신이 되신 말씀이요 참 이스라엘로서 성경을 완성하시며, 성경의 권위를 주장하신다(44쪽). 라이트에 따르면 예수님은 유대 전통에 맞서 구약의 어떤 가르침은 더 강하게 요구하셨다. 반면 음식 규정이나 하나님과 이스라엘만의 독점적 관계 같은 조항은 이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셨다(45쪽). 라이트는 성경의 권위 안에 긴장이 있다고도 말한다. 신명기는 의로운 삶이 이생에서 보상받는다고 하고, 욥기는 꼭 그렇지 않다고 한다

프레임은 각주에서, 라이트가 이것을 모순이라고 단정하지도 않고 억지로 조화시키지도 않는다고 평한다. 대부분의 정통 신자들처럼 더 큰 진리의 여러 측면으로 보는 것 같다는 것이다. 사도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시키는 성령의 도구다. 사도들이 구약을 쓰는 방식에도 복음과 이어지는 면과 끊어지는 면 사이의 긴장이 있다. 라이트는 구약을 여행자를 목적지까지 데려다준 배에 비유한다. 도착하면 배를 두고 육지로 가는데, 배가 나빠서가 아니라 제 역할을 다했기 때문이다(57쪽). 신약의 사도적 가르침은 교회가 세상 문화와 부딪칠 때 길을 잡아 주는 '새 언약의 좌표'다(59쪽).

1. 하나님 나라 = 악을 무찌르는 역사 개입
2. 라이트의 영감: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의 의도
3. 하나님의 말씀 ≠ 기록된 성경 (라이트)
4. 예수님은 성경을 완성하고 일부 조항은 폐하심
5. 구약은 목적지에 데려다준 배

> **신명기 (책 전체 주제, 장절 없음)**
> (라이트 언급) 의로운 삶이 이생에서 보상받는다는 관점

> **욥기 (책 전체 주제, 장절 없음)**
> (라이트 언급) 의로운 삶이 이생에서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는 관점, 신명기와의 '긴장'

📜 5. 교회사 속의 성경: 정경에서 계몽주의까지

교회가 성경에 권위를 주었는가? 라이트는 아니라고 답한다. 그것은 우편으로 명령을 받은 군인이 집배원을 자기 상관이라고 여기는 것과 같은 착각이다(63쪽). 교회는 하나님 나라라는 큰 이야기를 이어 온 책들을 정경(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책들의 목록)으로 알아보았을 뿐이다. 라이트는 순교자들이 읽은 책이 도마복음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 같은 사도들의 글이었다고 지적한다(63쪽). 도마복음은 이야기가 없는 어록 모음이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이야기라는 큰 틀에 놓기를 일부러 피한다(63–64쪽). 일부의 비판과 달리

줄었다고 본다. 그 대신 성경을 항소 법원, 규정집, 개인 경건을 위한 '거룩한 독서'로 쓰는 일이 늘었다(64–65쪽). 이 흐름은 알레고리 해석과 중세의 '사중 의미'로 이어졌다. 종교개혁의 '오직 성경'은 전통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었다. 구원받으려면 성경 밖의 무언가를 더 믿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한 반대였다(72, 117–119쪽).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문자적 의미'는 비유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원저자가 실제로 뜻한 바를 지키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본문이 비유라면 문자적 의미 자체가 비유로 읽으라고 요구한다(73, 92–94쪽). 다만 라이트는 개신교와 로마 교회가 논쟁하는 동안 양쪽 다 성경의 이야기적 성격을 가볍게 여기고, 권위를 '판결을 얻으러 가는 곳'으로만 생각했다고 본다(75쪽). 리처드 후커(16세기 영국 성공회 신학자)에게 이성은 성경을 책임 있게 사용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계몽주의에 와서 이성은 성경 위에 서는 최고 권위로 다시 정의되었다(79–80, 119–120쪽). 계몽주의는 인간 진보라는 다른 이야기를 내세웠고, 완벽하게 합리적인 사회를 종말의 이상으로 삼았으며, 악의 문제도 이성만으로 다루려 했다(87–88쪽). 이것이 현대 성서학의 진흙탕 논쟁과, 성경을 합리주의와 섞으려는 시도로 이어졌다(89쪽). 라이트가 제시하는 처방은 학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아끼던 전통을 잘라 내는 일이 생기더라도, 성경을 더 온전히 이해하고 더 온전히 살아 내려는 새로운 노력이다(91쪽). 그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성경의 권위가 뜻하는 바라고 말한다.

1. 교회는 권위를 준 게 아니라 알아봄
2. 순교자는 도마복음이 아닌 정경을 읽음
3. 오직 성경 = 성경 밖 구원 조건에 대한 반대
4. 문자적 의미 = 원저자가 뜻한 의미
5. 계몽주의: 이성이 성경 위의 최고 권위로

> —
>
> 이 절에는 직접 인용된 구절이 없음 (교회사 개관)

📜 6. 전제와 사실성, 그리고 오늘의 성경 읽기

내세운 것은 잘못이었고, 문자주의자도 자기 확신을 다시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라이트는 그렇다고 복음서의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는지에 무관심하다는 뜻은 결코 아니라고 강조한다(95, 112–113쪽). 그리고 질문을 던진다. 핵심은 성경이 참임을 증명하는 데 있는가? 늘 하던 생각을 계속하려는 데 있는가? 아니면 성경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우리가 들어 본 적 없고 듣고 싶지 않던 말까지 하게 하는 데 있는가?(95쪽) 프레임은 이 질문이 안일한 신자에게 도전이 된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사과냐 오렌지냐처럼 억지로 하나만 고르게 만든다고 비판한다. 성경이 참임을 변호하는 일과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할 자유를 존중하는 일은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라이트는 7장에서 좌파와 우파의 성경 오용 사례를 다루는데, 프레임은 그 비판이 대체로 정확하다고 본다. 8장에서 라이트는 하나님 나라라는 맥락으로 돌아가 선교를 위해 성경을 읽자고 말한다. 성경의 권위란, 하나님이 성경으로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말씀하시며 성령의 치유하는 사랑으로 그들을 바꾸시는 일이라는 것이다(116쪽). 우리는 창조, 타락, 이스라엘, 그리스도, 교회로 이어지는 '5막극' 속에서 자기 역할을 알아야 한다(121–127쪽). 성경 읽기는 맥락을 따라야 하고, 예배를 통해 이끌리고, 개인적으로 연구되고, 좋은 학문으로 새로워지고, 교회가 인정한 지도자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128–142쪽).

1. 전제 없는 주해는 없다 (라이트·프레임 공감)
2. 라이트도 사건의 사실성에 관심 있음
3. 라이트의 질문은 거짓 양자택일 (프레임)
4. 성경의 권위 =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변화 사역
5. 5막극 속 내 역할 찾기, 다섯 가지 읽기 원칙

> —
>
> 이 절에는 직접 인용된 구절이 없음 (라이트의 해석 원칙과 프레임의 반문)

📜 7. 프레임의 평가 ①: 영감의 정의가 너무 넓다

프레임은 먼저 칭찬한다. 자기가 아는 한 이 책에는 동의하지 않는 진술이 하나도

대해서도 가치 있는 말을 한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가 빠져 있다. 성경 수호전을 진지하게 다루려면, 하물며 넘어서려면, 영감이 성경 본문에 영향을 미치는지, 미친다면 어떻게 미치는지를 물어야 한다. 라이트의 영감 정의(37쪽)는 프레임의 서재에 있는 책들에도 그대로 들어맞는다. 하나님은 그 책들의 저자, 편집자, 출판인의 마음도 움직이셨고, 프레임이 그 책들을 갖기를 원하셨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서재에는 형편없는 책도 있다. 그러니 영감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스리고 이끄시는 일) 정도인지, 하나님이 그 내용을 직접 인정하시는 것인지를 물어야 한다. 라이트는 이 문제를 다루지 않지만 성경은 다룬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쓰셨고, 선지자들은 “여호와가 말씀하시느니라”로 자기 메시지의 출처를 밝힌다. 예수님은 다윗의 말을 성령의 말씀으로 여기셨고, 바울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곧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된 것이라고 한다. 바울은 이 성격을 성경의 권위와 바로 연결한다. 그러니 영감은 하나님의 능력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가리킨다.

1. 라이트의 진술엔 거의 다 동의
2. 문제는 '무엇을 말했나'보다 '무엇을 뺐나'
3. 라이트의 영감 정의는 내 서재에도 맞음
4. 섭리인가, 하나님이 저자이신가?
5. 성경 자신이 신적 저작을 증언함

> **출애굽기 31:18**
> 십계명을 하나님이 친히 쓰심 → 기록된 글 자체가 하나님에게서 나옴
>
>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 **선지서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느니라" (장절 미표기)**
> 선지자들이 자기 말의 출처를 하나님으로 밝힘 → 사람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

> **마태복음 22:43**
> 예수님이 다윗의 시편 말씀을 성령의 말씀으로 돌리심 → 인간 저자의 글이 성령의 말씀
>
>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숨결)으로 됨 → 영감과 권위를 바울이 직접 연결

>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영감을 받은 책들의 저자이신가?”

📜 8. 프레임의 평가 ②: 이야기도 교리와 순종을 요구한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하고 심판하는 낯선 인격적 임재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하신 말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있으라'고 말씀하셔서, 곧 명령하셔서 창조하셨다. 예언과 성경은 능력이라는 면에서만이 아니라 말과 언어라는 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능력과 의미를 모두 지닌 말씀이라는 뜻이다. 라이트가 성경이 교리와 명령 이상이라고 한 것은 옳다. 그러나 영감이 하나님을 성경의 저자로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말이라면, 하나님 나라 이야기 안에서도 영감은 교리를 믿고 명령에 순종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해진다. 라이트 자신이 말하듯, 이야기는 그 본성상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가, 그렇다면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낳는다. 거꾸로 말하면 이야기 자체가 믿어야 할 교리와 따라야 할 명령을 품고 있다. 프레임은 각주에서 책 제목 『마지막 말씀』도 지적한다. 라이트는 성경을 '항소 법원'으로만 보는 것을 비판하지만, 성경은 다른 역할과 함께 적어도 그런 역할도 하지 않는가? '마지막 말씀'이라는 제목은 오히려 성경이 최종 판정자라는 인상을 준다. 제목은 미국 출판사가 붙였다고 하지만, 라이트가 오해를 부를 제목을 받아들인 것은 놀랍다고 말한다. 결국 이것이 성경 수호전의 실제 내용이다. 라이트가 말한 이야기적 맥락을 다 믿더라도, 성경의 말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지는 여전히 책임 있게 물어야 한다. 이 책은 그 질문에 답하지도 않고, 그 질문을 하지 말라고 설득하지도 못한다. 그래서 라이트의 제안을 똑같이 받아들인 두 사람이 이 질문에서는 정반대 입장일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자유주의와 근본주의의 싸움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교리적·윤리적 권위에 무관심할 수

회의적 학자 모임) 같은 회의론자를 존중하지 않는다. 그러니 그도 이미 성경 수호전 한가운데 있다. 이 싸움이 누가 더 뛰어난 학자인지 겨루는 시합인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걸린 문제인가? 후자라면 훨씬 더 많은 말이 필요하다.

1. 하나님의 말씀 = 능력이자 실제 언어
2. 이야기는 '진짜 일어났나?'를 묻게 함
3. 이야기 자체가 교리와 명령을 품음
4. 같은 맥락을 받아들여도 결론은 갈릴 수 있음
5. 라이트도 이미 성경 수호전 안에 있음

> **창세기 1장 (프레임은 장절 없이 '말씀으로 창조하심'을 언급)**
> 하나님은 명령하는 말씀으로 창조하심 →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면서 실제 언어
>
> **창세기 1장** [1]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3]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5]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6]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쟁점이 되고 있는가?"

⚖️ 오해와 반론

📖 용어

무오성
성경이 원래 기록된 그대로는 어떤 오류도 없다는 믿음.

성경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없고 실패하지 않는다는 믿음. 무오성과 함께 쓰인다.

영감
하나님이 성령으로 성경 저자들을 움직여, 그들이 쓴 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신 일. 프레임은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가 되신다는 뜻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

섭리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스리고 이끄시는 일. 좋은 책에도 나쁜 책에도 해당하므로 영감과는 구별된다.

정경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보고 받아들인 성경 66권의 목록.

오직 성경(sola Scriptura)
구원에 필요한 것은 성경에 다 있으므로 성경 밖의 것을 더 믿을 필요가 없다는 종교개혁의 원리.

문자적 의미
원저자가 그 글로 실제로 뜻한 의미. 비유로 쓴 글이면 비유로 읽는 것이 문자적 의미다.

사중 의미
중세에 한 본문을 문자적·비유적(알레고리)·도덕적·종말적의 네 겹 의미로 읽던 방식.

바울에 관한 새 관점
바울의 '율법의 행위'를 유대인을 구별하는 표지(할례·음식법 등) 중심으로 다시 읽자는 20세기 후반 학계의 흐름.

전제
무엇을 해석하기 전에 이미 품고 있는 기본 믿음. 프레임(그리고 그가 따르는 반틸)은 누구도 전제 없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본다.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프레임은 라이트의 진술에 거의 모두 동의하고, 이야기·하나님 나라·정경·해석에 관한 통찰을 높이 산다.
- 문제는 라이트가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해야 할 말'을 빼먹은 것이다. 영감이 성경 본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는가라는 질문이다.
- 성경 자신(출애굽기 31:18, 마태복음 22:43, 디모데후서 3:16)이 하나님을 성경의 저자로 증언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면서 실제 언어다.
- 이야기는 교리와 명령을 없애지 않고 오히려 요구한다. 그러므로 성경 수호전은 이야기라는 맥락만으로는 넘어설 수 없다.

🎬 이 장을 쓰는 편

- 성경론 23편 · 성경의 권위 없이 그리스도도 없다 · 다섯 책의 합창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